

전국 공무원에게 보내는 서신 (2)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아침에 출근하여 국내언론비서관실에서 올라온 언론보도 요약보고를 보니 '혁신... 뭘니까, 이게' 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원체 혁신에 공을 들이고 있던 터라 혁신이라는 제목에 이끌려 다른 기사 다 제쳐두고 그 기사부터 얼른 읽어 보았습니다.

참으로 역장 무너지는 기사더군요. 요지는 혁신의 '혁' 자만 들어도 머리 아파 하는 공무원이 많고, 성과는 생색용이고, 혁신동아리 활동이라는 것도 잡담이나 나누고 시간이나 보내는 데 불과하여 혁신이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곁돌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도 공무원의 생생한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니 나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대꾸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덮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관저에 돌아오니 아내가 또 이 기사를 오려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하는 일이 다 헛수고라고 하니 무척 마음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저야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 이미 상당한 성과를 확인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터이니 이만한 기사에 마음 흔들릴 일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하자는 일이라서, 아니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서 열심히 혁신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회의를 갖는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되어 이 편지를 씁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공무원은 이미 수백 건의 혁신 성공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고, 그중 수십 건의 모범사례가 「변화를 선택한 리더들」, 「정부가 변하고 있다」 등의 책으로 출판되어 공무원 사회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혁신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설문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70% 이상이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60% 이상이 혁신활동과 자기 업무와의 연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짜증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소하고 비방하고 분위기를 깨는 사람도 있겠지요. 언제 어떤 일이나 그런 사람은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전부가 그렇다고 치부하거나 그 사업이 다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과수원에 사과 몇 알 상한 것이 있다고 이 과수원 사과는 다 상했다, 사과 농사는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공무원 100%가 혁신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혁신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거나 순진한 생각으로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저는 공무원 여러분을 믿습니다. 선의를 믿고 역량을 믿습니다. 냉소하고 불평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보편적인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

고 있습니다. 깊이 살펴보지도 않고 하는 이런저런 평가에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여 자량과 보람을 함께 나눕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